

가스공사, 삼척 LNG 기지 공급개시

2조7000억원 투입해 No.4 완공 ... 2014년 말까지 178만톤 공급 계획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4번째 LNG(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인 삼척기지에서 7월4일부터 천연가스 공급을 시작했다고 7월7일 발표했다.

가스공사는 지역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2010년 3월 삼척기지 건설을 본격화했고 2조 7000억원을 투입해 4년 4개월 만에 가스 공급을 시작했다.

3단계로 진행되는 삼척기지 건설은 방파제 및 저장탱크 3기, 송출설비 공사 등 1단계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로 7월 말 모든 공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현재는 시운전 차원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2단계는 2016년 6월까지 저장탱크 6기와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고, 2017년 5월까지 저장탱크 3기 및 송출설비를 건설하는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삼척기지는 2014년 말까지 공급목표량 3917톤의 4.7%에 해당하는 178만톤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강원을 비롯한 부산·경남 지역으로도 공급할 예정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삼척기지는 평택과 인천, 통영에 이어 제4기지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건설이 추진된 것”이라며 “삼척기지는 가스 운반선이 입항한 뒤 첫 공급까지 11일이 소요되는 최단 기간 공급체제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7/08>